



정교회주보

제2487호

2024.08.2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키프로스 라르나카 지역의 해발 750m 바위 언덕 위에 있는 스타브로부니 수도원(사진)은 성 엘레니 모후에 의해 327~329년경에 건립되었다. 엘레니 모후는 예루살렘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 방문하여 주님의 성 십자가 조각 일부를 이곳에 보존하였다. 지금도 성 십자가에서 향기가 난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은 이 수도원을 출입할 수 없다.



마태오 제9주일
성 디도 사도(크레타의 주교)
성 바로톨로메오스 사도(이장)
(제8조 • 조과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고린토 전 3,9~17 · (봉)194
- 복음경 : 마태오 14,22~34 ... 11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마태오 20,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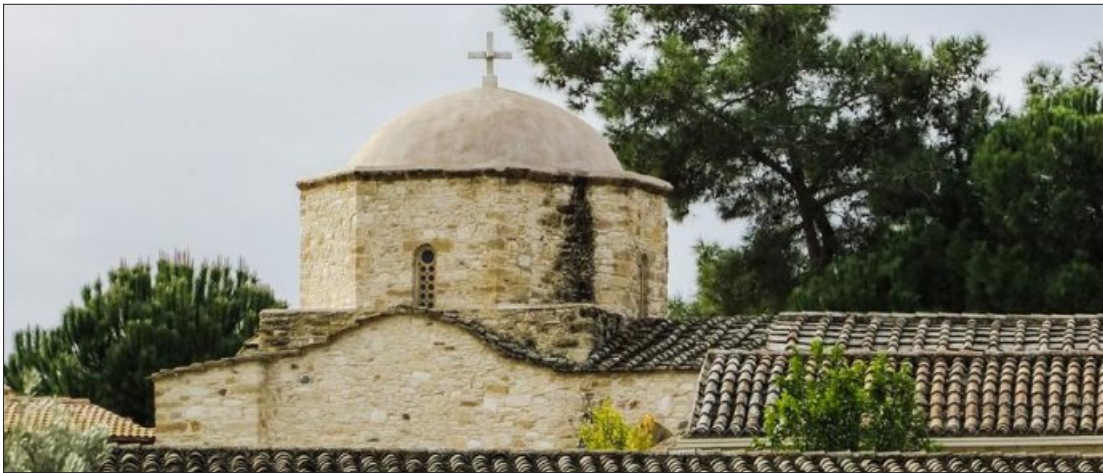
분명 예수님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 결정적인 사건에 결합하길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개인적 소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제자에게 각각 알맞은 시간을 택하시어 사도들의 특권에 참여하라고, 고통스러운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이 초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하느님의 부르심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 교회가 오늘 디도 사도와 바르톨로메오스 사도의 축일을 맞는 것처럼, 어떤 성인의 축일을 맞을 때, 하느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사로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또 누군가에게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힘든 조건 속에서 투쟁하며 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수만큼이나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길은 정말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나요?

오늘날 인간은 전혀 없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이나 거부합니다. 자신에게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오 16,24)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계속 불만족스럽고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 속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공허함을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성취물들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자신이 성취한 것의 노예가 되고, 그 성취물이 나쁜 방식으로,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한 예로, 무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물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위협하고 해치기까지 합니다.

부, 쾌락, 돈, 기술에 대한 숭배는 현대의 바벨탑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비극적으로 무너져서 그 파괴로 현대인을 짓밟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기계와 기술이 뒤섞인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인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잘 듣고 따릅시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대한 신뢰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라고 말합시다.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2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행동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부드럽게 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아무도 화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질투나 시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그를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왕 중의 왕이신 재판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도와주고 싶다면, 한두 마디를 부드럽게 말하고, 적대적인 말투로 화를 분출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 마음 속에 어떤 미움의 표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느님은 화를 내거나 분개하지도 않으시며, 어느 누구도 격하게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

오, 거룩한 자선이어!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낙원을 팔려고 찾아와 말합니다.

“제게 밥을 조금 주고 천국을 가지세요.”

“제게 입을 옷을 주고 하늘 왕국을 가지세요.”

“제게 돈을 좀 주고 천사의 기쁨을 받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밥 한 그릇을 나눠줍니다. 밥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가진 돈이 없다면, 옷이라도 줍시다. 한 잔의 물이라도 줍시다. 뭐라도 먹을 것을 좀 줍시다. 무엇이든지 그냥 나눠줍시다...

주고 천국을 샅시다!

그리스도를 옷입힙시다. 그러면 심판날에 그 분이 당신을 옷입힐 것입니다.

혈벗은 당신의 자매, 형제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그들 또한 당신을 덮어서 감싸줄 것입니다.

오 거룩한 자선이어! 당신이 자선을 베풀면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천배나 많은 자선을 입을 것입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407년 안식)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8월 30일(금) 축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8월 29일(목)
세례자 요한 참수 기념일
 - * 8월 30일(금)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알림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 소식

성당 축일을 맞아 14일(수)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15일(목)에는 성찬예배, 광복절 대영광식, 축일 행렬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로만 카브착 대신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 실베스트로스 장 신부(중국인)의 공동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우쿨렐레 연주와 함께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습니다.

■ 인천 성당 세례성사

지난 17일(토), 예비자 3명이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베드로 송재걸, 포카스 박민서, 게오르기오스 김시현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19일(월) 안식하신 서울 성당의 안투스 방현자 교우(알렉산드로스 이강진 교우 모친)의 장례예식이 21일 용미리 묘지에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인의 영혼을 안식케 하시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영성의 샘터

분별 있는 영적 생활

언젠가 수도자들이 실루아노스 사부에게 물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셨기에 하느님께서 그런 분별의 은사와 지혜를 주셨을까요?”

사부가 겸손하게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데.”